

일본 1차 에너지 공급 감소추세

산업부문의 소비감소 따라 ... 이라크 정세 따라 추가감소 가능

일본의 2003년 에너지 공급이 산업부문의 소비감소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에너지경제연구소 전망에 따르면, 2003년 제1차 에너지 공급은 에틸렌 감산 등 산업부문의 소비감소로 0.3% 감소한 5억7140만kℓ(원유환산)로 나타났다.

여기에 중동분쟁의 확대 등으로 원유가격이 급등하면 제1차 에너지 일본 내수 공급은 1.2% 감소한 5억6630만kℓ에 각각 머물 전망이다.

2002년 1차 에너지 일본 내수 공급은 전년대비 1% 증가, 최종 에너지 소비도 1% 증가해 원유로 환산했을 때 각각 5억7290만kℓ, 4억140만kℓ를 기록했다.

내수 공급의 증가는 조강(粗鋼)생산증가 등으로 석탄과 석유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특히 석유는 연료유 판매가 3년만에 증가로 바뀐 것을 비롯하여 BC중유가 원자력발전의 장기정지로 전력용의 사용이 크게 늘어나 3년만에 1.6% 증가했다.

일본의 에너지 수급전망

구 분	2000	2001			2002			2003
		상반기	하반기	합계	상반기	하반기	합계	
1차에너지 공급 (10 ¹⁰ kcal=1000TOE)	535,025 (0.2)	257,051 (▽0.3)	267,051 (▽3.5)	524,477 (▽2.0)	257,524 (0.0)	272,441 (2.0)	529,966 (1.0)	528,528 (▽0.3)
석유비중(%)	49.9			49.3			49.6	47.6
최종에너지 소비 (10 ¹⁰ kcal=1000TOE)	375,732 (0.7)	175,003 (▽2.3)	192,694 (▽2.0)	367,697 (▽2.1)	175,330 (0.2)	195,991 (1.7)	371,321 (1.0)	369,525 (▽0.5)
산업부문	178,085 (1.5)	82,791 (▽4.6)	88,266 (▽3.3)	171,057 (▽3.9)	83,365 (0.7)	89,860 (1.8)	173,225 (1.3)	171,368 (▽1.1)
민간부문	99,745 (2.4)	43,226 (0.1)	55,520 (▽1.8)	98,746 (▽1.0)	43,174 (▽0.1)	57,225 (3.1)	100,399 (1.7)	100,606 (0.2)
운수부문	90,739 (▽2.2)	45,844 (▽0.2)	45,170 (0.8)	91,013 (3.0)	45,667 (▽0.4)	45,110 (▽0.1)	90,777 (▽0.3)	90,618 (▽0.2)
전력 판매량(100만kwh)	858,083 (2.6)	430,674 (▽1.0)	413,700 (▽2.2)	844,374 (▽1.6)	431,270 (0.1)	423,337 (2.3)	854,607 (1.2)	860,755 (0.7)
도시가스 판매량 (100만m ³ /+1만kcal)	25,017 (4.5)	11,628 (1.5)	13,778 (1.6)	25,406 (1.6)	12,212 (5.0)	14,702 (6.7)	26,914 (5.9)	27,782 (3.2)
연료유 판매량(1000kl)	243,211 (▽1.1)	109,890 (▽3.2)	126,310 (▽2.6)	236,199 (▽2.9)	108,076 (▽1.7)	130,603 (3.4)	238,679 (1.0)	231,590 (▽3.0)
국내총지출 (1995년 기준 10억엔)	539,215 (3.2)	264,061 (0.2)	267,508 (▽3.0)	531,569 (▽1.4)	265,087 (0.4)	270,648 (1.2)	535,735 (0.8)	538,555 (0.5)
일본 GDP 원단위(1995=100)	97.4 (▽2.9)			96.8 (▽0.6)			97.1 (0.3)	96.3 (▽0.8)
CO ₂ 배출량(탄소환산 100만톤) (1990=100)	316 110.2 (1.1)			312 108.7 (▽1.3)			320 111.6 (2.6)	311 108.3 (▽2.9)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